안치홍 "내 생일은 雨요일"

생일선물 쌀 보육원 보내

올해도 비였다.

2일 쌀 화환이 챔피언스 필드 선수단 출입구에 세워졌다. KIA 안치홍의 생일축하하는 문구가 적힌 화환과 10㎏짜리 쌀 16포대. 안치홍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팬들이 직접 설치한 특별 선물이었다.

그러나 안치홍을 응원하기 위해 멀리서 달려온 팬들은 두산과의 경기가 우천취소가 되면서 관중석에 자리도 하지 못했다.

우천 취소 소식에 "안치홍의 생일날 야구보기 힘들다"는 소리가 절로 나올 수 밖에 없었던 팬들. 안치홍의 생일인 7월2일에는 어김없이 비가 있었기 때문이다.

신인 시절인 2009년 생일에는 비가 오락가락 했다. 대구구장에서 열린 이날 삼성과의 경기는 안치홍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톱타자로 나왔던 안치홍은 연달아 9·10호 홈런을 때려내며 김재현·이승엽·김태균 이후 4번째로 고졸 신인 두 자릿 수 홈런의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렸다. 14-9 승리를 이끈 결승타의 주인공 역시 안치홍이었다.

공교롭게도 1년 뒤 생일날도 안치홍은 삼성과의 원정길에 올랐다. 하지만 이날은 비가 계속되면서 경기를 하지 못하고 짐을 쌌다.

2011년 안방에서 치러진 한화와의 주말 시리즈에서는 비가 이어졌고, 2012년 생일은 월요일이라서 야구 경기가 없었다. 지난해 7월2일에는 SK와 경기가 열린 문학구장에 경기 직전까지 비가 계속되면서 팬들이 마음을 졸여야했다.

비와의 인연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않았다. 25번째 생일이었던 2일 오후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리면서 두산과의 경기가 우천취소가 된 것이다. 올 시즌 KIA의 두 번째 우천취소.

생일날은 양현종과도 인연이 깊다. 2009·2011년에 이어 2014년 생일날 선발도 양현종이었다. 2011년과 2013년 생일날은 김진우가 선발도 등판했었다.

"지난해 힘든 시즌을 보내서 그런지 이제 겨우 25살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웃은 안치홍은 "팬들의 응원과 선물에 감사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내주신 쌀은 보육원에 보낼 예정이다"고 생일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말·말·말

두산 투수 오현택, 최근 상승세 안치홍에 "살살쳐줘"

▲"살살쳐라."

2일 두산과의 경기가 우천취소되면서 양팀 선수들은 실내에서 스트레칭과 배팅 훈련을 진행했다. 홈팀 KIA가 먼저 훈련을 끝낸 뒤 두산 선수들이 실내 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겨 몸을 풀었다. 훈련을 끝내고 통로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던 안치홍. "살살쳐라"며 안치홍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지나가는 선수가 있었다. 2일 선발로 예고됐었던 두산의 오현택이었다. 안치홍은 올 시즌 두산전에서 2개의 홈런 포함 0.370의 타율로 7타점을 기록하고 있다. 앞선 오현택과의 승부에서는 3점포를 쏘아올리기도 했다. 최근 페이스도 매서운 만큼 두산에게는 우선 경계대상이 된 안치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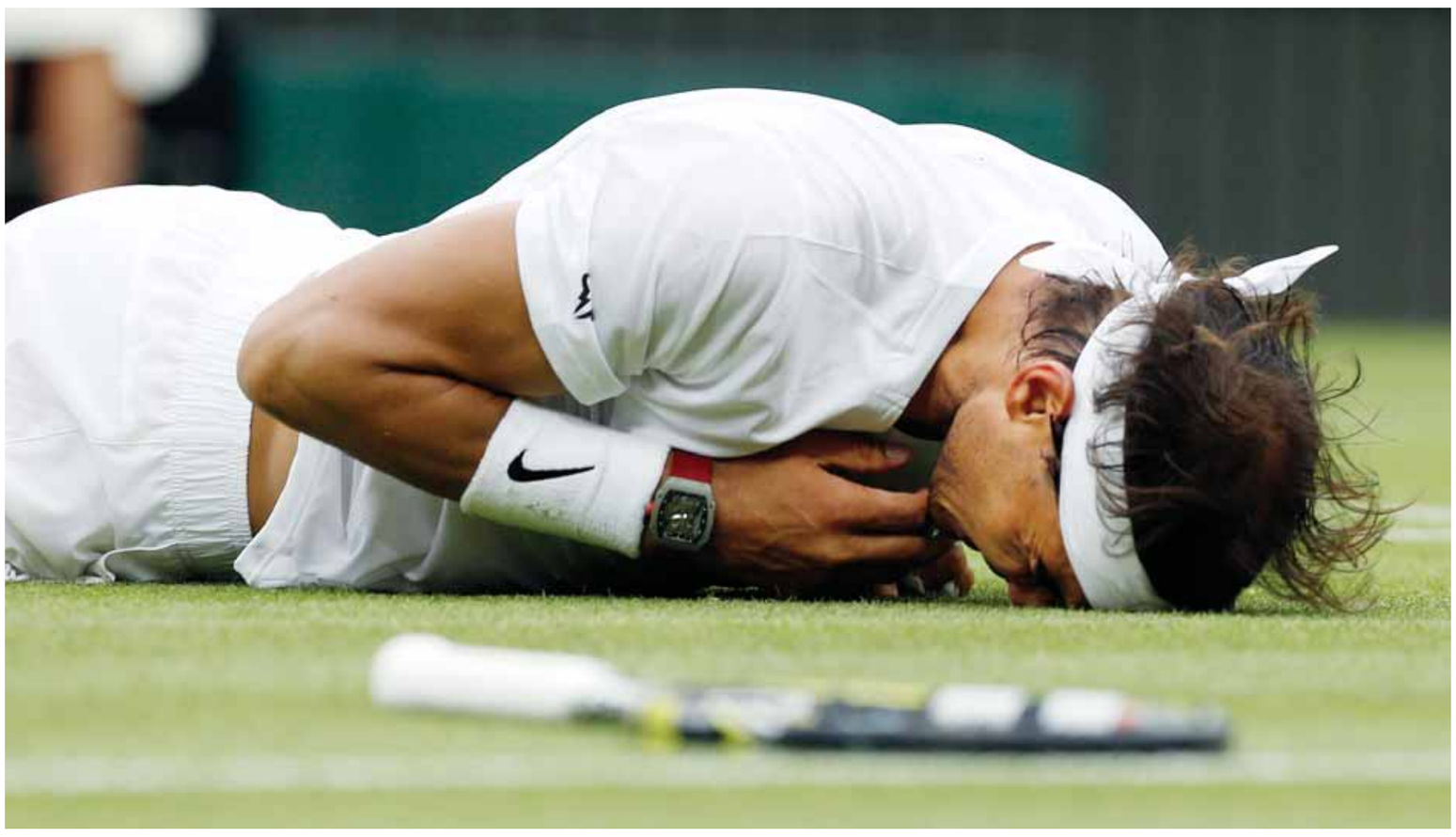
▲"그럼 양현종인가?"

내리는 비를 보고 있던 두산 선수들. 비예보가 계속있다는 소식에 덕아웃에는 우천취소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하루 경기를 쉬어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비를 반기는 분위기. 하지만 난감한 표정을 지은 선수가 있었다. 3일 선발로 준비를 하고 있던 유희관이 그 주인공이었다.

유희관은 "그럼 내일 양현종을 만나게 되는 것인가?"라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KIA에서는 2일 양현종에 이어 박준표가 3일 선발로 대기하고 있던 상황. 유희관에게는 KIA 에이스 양현종 보다는 프로 첫 선발로 나서는 박준표가 한결 편한 상대이기 때문이다. 한편 두산이 오현택이 아닌 유희관을 선발로 예고하면서 3일 챔피언스필드에서는 KIA 양현종과 두산 유희관이 맞붙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반란의 코트' 테니스 랭킹 144위 키르기오스 1위 나달 꺾어

윔블던 대회 단식 16강전

남자프로테니스(ATP) 랭킹 1위 라파엘 나달(스페인)이 윔블던테니스대회(총상금 2500만 파운드) 단식 16강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나달은 1일(현지시각) 영국 윔블던의 올잉글랜드클럽에서 치러진 대회 8일째 남자 단식 16강에서 닉 키르기오스(144위·호주)에게 1-3(6〈5〉-7 7-5 6〈5〉-7 3-6)으로 졌다.

올해로 19살인 키르기오스는 단숨에 돌풍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메이저대회에서 세계랭킹 1위가 100위 밖 선수에게 진 것은 1992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윔블던에서 짐 쿠리어(미국)가 193위 선수인 안드레이 올로브스키(러시아)에게 진 바 있다.

나달은 2012년부터 3년 연속으로 윔블던 8강 진출에 실패했다. 그는 2012년엔 2회전, 지난해엔 1회전에서 고배를 들었다.

나달은 "코트 표면이 문제"라며 "볼을 강하게 치는 상대를 만나면 문제가 생긴다"고 잔디 코트 경기가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어 "2~3세트엔 상대보다 나은 경기를 했지만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나머지 세트에선 상대가 나보다 더 잘했다"고 패배를 인정했다. 키르기오스는 밀로스 라오니치(9위·캐나다)와 만난다. 라오니치는 니시코리 게이(12위·일본)에게 3-1(4-6 6-1 7-6〈4〉 6-3)로 역전승했다. 라오니치는 캐나다 남자선수로선 102년 만에 윔블던 8강에 진출했다.

여자 단식에선 페트라 크비토바(6위·체코)와 루시 사파로바(23위·체코)가 4강에 나란히 안착했다. /연합뉴스

광주 FC 임선영·김종민 베스트 11 선정

K리그 챌린지 16라운드

대구전서 득점·어시스트

임선영

김종민

광주 FC의 공격수 임선영과 수비수 이종민이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일 K리그 챌린지 리그 16라운드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대구와의 홈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은 임선영과 김호남의 결승골을 도운 이종민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임선영은 "7경기 만에 광주의 승리를 안겼다. 정확한 위치선정과 마무리로 1득점을 했다"는 호평 속에 베스트 11이 됐다.

이종민은 "징계에서 복귀하자마자 '택배 크로스'로 결승골을 도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선영은 대구전에서 전반 28분 김민수의 헤딩 패스를 받아 헤딩골을 넣으며 결승골을 기록했었다. 이종민은 1-1로 맞선 후반 20분 문전에 있던 김호남에게 정확한 크로스를 올리며 김호남과 결승골을 합작했다. 광주는 이날 승리로 6경기 연속 무승의 부진에서 벗어났다.

/김여울기자 wol@kwangju.co.kr

박지성 "K리그 사랑해주세요"

25일 K리그 올스타전 참가

"국내 팬 앞서 마지막 경기"

현역에서 은퇴한 '산소탱크' 박지성(33)이 프로축구 K리그 올스타전(25일·서울월드컵경기장)을 앞두고 "많은 팬이 오셔서 즐거운 축구 축제에 동참해줬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박지성은 2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을 통해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이번 경기를 통해 팬들이 K리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으면 좋겠다"며 "K리그 올스타전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 게 나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일 올해 올스타전을 팬들이 뽑은 'K리그 올스타팀'과 '팀 박지성' 간 맞대결로 치르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지성은 이에 대해 "국내 팬 앞에서 경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K리그 올스타전에 참가하게 돼 기쁘다"며 "가장 현역 선수 때의 몸 상태를 유지하면서 치르는 마지막 경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분이 와서 즐거운 축제에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즐겁고 재미있는 경기를 보여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K리그 올스타 베스트 11에 대한 투표는 오는 13일까지 국내 포털사이트와 연맹 홈페이지(www.kleague.com)에서 이뤄진다.

'팀 박지성'의 출전 명단은 순차적으로 공개되며, 양 팀의 최종 명단은 오는 17일 확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추신수 안타 행진, 팀은 연패 행진

볼티모어전 1번 타자 출전

4타수 1안타… 팀은 3-8패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2)가 안타 생산은 재개했지만 득점 기회에서는 힘없이 물러났다.

추신수는 2일(한국시각)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캠든 야드 오리올파크에서 열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번 타자 좌익수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쳤다.

그의 시즌 타율은 0.251을 유지했으나 출루율은 0.368에서 0.366으로 조금 떨어졌다.

텍사스는 볼티모어에 3-8로 져 최근 3연패에 빠졌다.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이다가 전날 볼티모어와 4연전 첫 경기에서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던 추신수는 첫 타석에서 안타를 치며 기분 좋게 시작했다.

상대 선발인 왼손 투수 T.J. 맥팔랜드와 첫 대결에서 0볼-2스트라이크의 불리한 볼 카운트에 몰렸지만 5구째 속구가 가운데로 들어오자 놓치지 않고 밀어쳐 좌익수 앞으로 보냈다.

하지만 후속타자 엘비스 앤드루스의 2루수 땅볼 때 2루에서 아웃돼 더는 진루하지 못했다.

텍사스는 1회말 선발투수 닉 마르티네스가 스티브 피어스와 넬슨 크루스에게 솔로홈런을 얻어맞아 0-2로 끌려갔다.

피어스의 타구는 펜스 앞에서 뛰어오른 추신수의 글러브를 피해 폴을 맞고 홈런이 됐다.

추신수는 텍사스가 2회초 반격에서 세 타자 연속 안타로 2-2 균형을 맞춘 뒤 2사 3루에서 다시 방망이를 들었지만 이번에는 1루수 땅볼로 물러났다.

추신수는 5회에도 무사 1,2루의 득점 기회에서 타석에 들어섰지만 좌익수 뜬공으로 잡혔다.

7회 1사 1루에서는 2루수 앞 병살타로 돌아섰다.

텍사스는 2-2로 맞선 2회말 케일럽 조지프에게 좌월 2점 홈런을 허용하는 등 이날 홈런포 세 방을 내줬고, 수비 실책까지 저질러 맥없이 무릎 꿇었다.

안타 수에서는 10-8로 볼티모어에 앞섰지만 타선의 집중력이 부족했다.

/연합뉴스

7월18일 까지
소파 식탁 보상판매
쓰시던 소파 식탁을 최대 200만원 까지 (타사상품 포함)
NAVER 홍스페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 옆) 홍스페이스 SPACE ☎1899-0240